

전국 고3 선택형 수능 첫 모의고사

“국어·수학 평이, 영어는 어려웠다”

10명중 9명 영어 B형 선택

수준별 선택형 수능에 대비한 모의고사에서 영어를 선택한 수험생 10명중 9명이 수준은 B형을 선택했다. 올해 첫 도입인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적용한 전국학력평가가 13일 치러졌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고교 3학년 3만9000여 명이 응시했다.

과목별 선택비율은 광주지역은 국어 A형 53%, B형 47%, 수학 A형 56.8%, B형 43.2%, 영어 A형 13.2%, B형 86.8%였다. 전남은 국어 A형 51.8%, B형 48.1%, 수학 A형 58.5%, B형 41.5%, 영어 A형 11.6%, B형 88.4%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 B형(87.5%)에 대한 풀림 현상이 심했다. 첫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이 일단 난이도가 높은 B형을 선택해 자신의 수준을 점검한 것으로 풀이된다.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구분한 선택형 수능을 처음 시행했지만 혼란은 없었다.

국어 A형은 수능보다 쉽게, B형은 기존 수능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됐다. 수학 A형은 평이한 수준으로, B형은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다. 영어는 수험생들이 대체로 어려워하는 빈칸완성 문제가 많아 힘들었다는 반응이다.

국어 B형과 수학 A형·영어 B형을 선택한 고교 3학년(19)군은 “지난해 11월 평가시험보다 체감 난도는 쉬웠다”면서 “국어는 조금 어려웠고, 수학은 평이했다. 영어는 빈칸완성 문제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형수(고교 3학년 부장) 광주시 진학부장협의회 회장은 “첫 시험이어서인지 마킹 실수 등 긴장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국어와 수학은 대체로

평탄했지만, 영어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유성우 전남교육청 진학담당 장학사도 “영어 B형은 듣기가 늘어나고 예문이 길어지는 등 확실히 까다로워졌다”고 평가했다.

오종운 이투스기술 평가사는 “영어 빈칸 완성은 A형이 3문항에 그친 반면 B형은 고난도 7문항이 나왔다. 대부분이 영어 B형을 치른 만큼 평균 원점수는 B형이 A형보다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이번에는 15%가량만 영어 A형을 선택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30%대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럴 경우 B형에서 하위 등급이 대거 빠지게 돼 B형 응시생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영수 A·B형 선택 가능

■ 수능 어떻게 달라졌나

2014학년도 수능 개편에 따라 영역과 유형, 선택과목 수, 문항 수 등이 2013학년도와 크게 달라졌다.

먼저 수준별 선택형 수능이 도입돼 국어와 수학, 영어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구분, 학생이 직접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또 국어영역 듣기평가는 없어지고, 영어영역 듣기평가는 A·B형으로 세분화됐다.

국어와 영어 문항 수가 지난해

보다 5개 줄어 45개 문항이고, 영어 듣기평가는 17개 문항에서 22개 문항으로 늘었다.

또 올해부터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문과계열 수험생은 사회탐구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이과계열 수험생은 과학탐구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치른다. 직업탐구도 통합 5개 과목 중 최대 1개, 제2외국어·한문은 9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학력평가가 13일 일제히 시행됐다. 광주시 남구 설월여고 3학년 학생들이 1교시 국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DNA 수사 피하려...

마약 용의자 모든 털 밀어버려 경찰, 모발 100개 뽑느라 진땀

DNA수사를 피하기 위해 신체의 모든 ‘털’을 면도한 범인으로부터 모발 100개를 뽑느라 경찰이 진땀을 뺐다.

마약수사대가 용의자를 잡아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해 모발이나 털을 채취하려다 순간 당황하고 말았다. 용의자가 남성의 경우 부위

와 머리 등 모든 털을 밀어버린 탓에 뽑을 털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머리에 난 1mm 밖에 되지 않는 짧은 모발을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느라 2시간을 허비했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모

의 중순 부산의 한 사우나 화장실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힐 때 조사를 피하기 위해 머리·수염·겨드랑이 털 등 신체의 모발을 모두 깎아버린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모발 100여개가 필요하지만 수염, 겨드랑이 털 등을 모두 면도해 버린 뒤라 수사관이 일일이 핀셋으로 하나씩 채취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시교육청 혼자만 전국 최고라 주장 정책 방향 미리 정해놓고 의견수렴”

박표진 전 부교육감 재반박

학력 저하와 소통 부재를 놓고 벌어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박표진 전 부교육감 사이의 ‘설전’이 접입가 경이다.

지난달 박 전 부교육감의 쓴소리 <광주일보 1일자 7면 보도>에 지난 7일 장 교육감이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반박(11일자 7면 보도)하자, 이번엔 박 전 부교육감이 “떠나는 자의 절박한 의견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박 전 부교육감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 교육감이 반박했다 ‘실력광주 하라’와 ‘소통 부재’의 실상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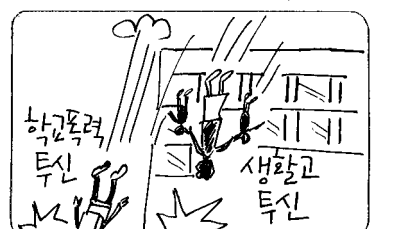
그는 “지금쯤 전국 어느 곳도 실력광주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지 않는다”며 “광주시교육청 혼자

만 전국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성적이 과거 수능에서는 1~2등급 1위, 1~4등급도 1위였는데 현재 1~2등급은 3위로 떨어지고 1~4등급도 1위에서 밀려났다고 밝혔다. 박 전 부교육감은 소통 부재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주요 정책의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했다”며 “많은 갈등을 느끼기에 명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언론보도 내용도 예전엔 교육청·일선학교 교직원 모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간부만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교육감이 이번 글은 지난 7일 장 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대응 격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초등생 3명이 장애여성 윤간 ‘충격’

초등학교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은 13일 지적 장애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11·초교 6년)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9일 오후 6시에 원주시 문막읍 한 공사장으로 B(23·지적 장애 2급)씨를 유인하고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씨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A군 등은 범행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명 ‘야옹’을 피해 여성에게 보여주며 강제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A군 등의 범행은 피해 여성이 다음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10대 청소녀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훈병원 치위생사 들 체포

광주지검 수사과는 13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보훈병원 치위생사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치위생사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보훈병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d@kwangju.co.kr

통닭·족발·피자 등 ‘배달음식털이’

남부경찰, 20대 입건

광주시 남구 진월동 배달 음식점 주인들은 배달 음식을 지키느라 비상이 걸렸다. 통닭·족발·피자 등 고객이 주문한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한 도난 사건이 극성을 부리며 있다. 범인은 수십 차례 범행해 수시로 경찰서를 드나들지만 단 시간에 풀려나 또다시 음식점이 나서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배달 오토바이에 넣어둔 음식물만을 전문적으로 훔쳐온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에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아파트에 세워진 남모(36)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통닭 1마리를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3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인근 아파트에서 통닭 4마리를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또 1월에도 인근에서 통닭·보쌈·피자·족발 등의 배달 음식을 20여 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당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상습절도지만 경찰은 적은 피해액과 정신 이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펼치면서 배달업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인근 통닭집 주인은 “보통 배달할 때 한번에 3~4마리씩 갖고 가는데, 김씨 거주지 인근에서 주문이 오면 한 마리씩만 배달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사탕으로 사랑 고백하려다 쇠고랑

○...절도 혐의로 10개월간 경찰에 쫓기던 40대 남성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만나 사탕을 선물하려다, 미리 알고 잠복하던 경찰에 걸렸다.

○...13일 장흥경찰에 따르면 김모(44)씨는 지난해 5월13일 밤 10시께 장흥군 관산읍 박모(44)씨의 생선가게에서 200만원이 든 돈가방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김씨는 범행 뒤 고작잡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최근 여자친구에게 사탕을 건네주려고 돌아와 장흥읍 건산리 터미널 부근에서 미리 알고 기다리던 경찰에 걸렸다.

/장흥=김정욱기자·중부취재본부장

Canon EOS 6D

「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개는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

hello tv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SAVE 최대 56%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